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운물류·해사 연구본부	성명	고병욱	직 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참석 · 전체 포럼(공개세션과 비공개 라운드테이블1, 2)에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2의 발제자로서 주제발표 · 미국 조선 협력 파트너 네트워킹 등									
관련사업 (예산항목)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요청한 발표로서 출장 관련 경비 일체 지원(KMI 부담 비용 없음)									
출장기간	2026.7.14(화) ~ 2026.7.18(토) (3박 5일)			출장지	미국(워싱턴D.C.)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 교통수단					
	7.14(화)	서울(10:25) →워싱턴D.C.(11:15)		항공이동	KE093					
		15:00-18:00		한국대표단 예비회의	-					
	7.15(수)	09:00-18:00		주제발표 준비	-					
	7.16(목)	9:00-16:30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					
		18:00-19:30		한국대표단 만찬						
	7.17(금) -7.18(토)	워싱턴D.C.(13:30) →서울17:40(+1)		항공이동	KE094					
출장성과	[출장 목적 달성 정도] -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참석 · 전체 포럼(공개세션과 비공개 라운드테이블1, 2)에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2의 발제자로서 주제발표 · 미국 조선 협력 파트너 네트워킹 등									
향후계획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속 협력 방안 논의에 참석해 한미 조선 협력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									
참고 등 특이사항	○ 없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7.14.(화) 한국대표단 예비회의
수행결과	□ (오후 3시-6시) 한국대표단 예비회의 - 참 석 자 : 윤주석 공사(주미 한국대사관), 신종계 교수(서울대 공대), 박준수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고병욱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용옥 이사(한국국제교류재단) - 주요내용 · 7월 16일 개최 예정인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회> 패널토론, 주제발표 등의 한국 측 대표단 논의 내용 등 공유 및 전략적 방향성 협의
업무②	7.15.(수) 주제발표 준비
수행결과	- 주요내용 · 7월 14일 한국대표단 예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발표자료 준비
업무③	7.16.(목)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회>
	□ 참 석 자 신종계 교수(서울대 공대), 박준수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고병욱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용옥 이사(한국국제교류재단) □ (오전) 공개세션: 동맹 기반 산업 협력의 미래: 한미 조선·해양 분야 협력과 혁신 - 주요 내용 · 아미 베라 의원(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미국 함정 구성요소의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민감한 핵심 기술과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아울러 해외에서 구성품을 나눠 만들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분산 건조도 제안함.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술 공유와 수출 통제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 신종계 교수(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중국의 전체 조선 능력이 미국의 230배 이상이며, 중국에는 항공모함으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드라이독이 50개 이상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서는 뉴포트 조선소 한 곳 밖에 없다고 지적함. 이러한 미국이 조선업을 빠르게 재건하려면 한국과 협업해야 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초기에는 한국에서 완성선을 건조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후에 미국 생산을 확대하는 협업 방식을 제안함 · 마이클 콜터(한화디펜스 USA CEO):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수출시장으로만 보고 보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산업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임.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전투함 건조, 모터 공급, 한국에서 선체를 건조한 뒤 미국 기술을 탑재하는 방안 등을 문의해 온 사례를 소개함 · 홍석환(HD현대 USA CEO): 미국 조선소 투자와 기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양대 전략으로 제안함. 아울러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 미국 근로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약 3년 간 현장훈련을 실시한 뒤 미국 조선소의 작업 책임자로 활용하는 '브릿지 전략'도 제안함 · 브리트니 클레이튼(RAND 연구소 선임운영연구원): 미국의 복잡한 방산 획득 관료 체계와 예측하기 어려운 발주/건증 중 설계 변경을 한미 조선 협력의 주요 장벽을 지적함. 기업이 장기투자를 하려면, 미국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수요 신호(demand signal)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구성품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한 뒤 미국에서 통합/시험하는 분산 건조 방식이나 민감한 기술이 적은 전략수송선부터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오후 1) 비공개라운드테이블1: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한미 협력: 해군 조선 및 방산 분야 연계

- 주요 내용

- 박준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의 함정 건조 수요는 크지만, 건조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음. 호주, 이탈리아 등과의 협력이 있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임.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은 산업 환경을 넘어서 사업관리가 핵심 이슈임. 미국에서는 업체 자율적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나아가 한미 협력 과정에서 미국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망 구축에 소요되는 상당 수준의 비용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도 중요함.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회 차원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국 측에서 투자가 가능해질 것임. 급유함, 전략수송함은 조속히 사업화가 가능할 것임. pilot program이라도 1척부터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 측 참여자 1: 양측이 강점을 살려 같이 건조해야 함. 미국의 인력 문제의 심각성에 유의해야 함. 특히 인력 문제의 규모/심각성을 진지하게 판단해야 함
- 미국 측 참여자 2: 차기 정부가 MASGA 정책을 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함
- 박준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방산 부문만을 가지고는 산업 유지가 어려움. 따라서 민/군이 같이 가야함
- 홍석환(HD현대 USA CEO):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함

□(오후 2) 비공개라운드테이블1: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미 협력: 상업 조선 및 해양 산업 분야

- 주요 내용

- 고병욱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상업 조선 및 해사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 한미 협력 방안을 발표함(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발표 자료를 참조)
- 미국 측 참여자 1: 미국은 더 이상 가구를 만들지 않음. 만약 상선을 미국에서 건조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인가? 또한 어느 수준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한 것인가?
- 미국 측 참여자 2: 지금 미국은 조선업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제약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부재함
- 신종계 교수(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한국과 미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선종을 찾아야 함. 특히 상선 건조와 함정 건조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기술과 금융 부문의 부족함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측 참여자 1: 미국에서 상선 건조를 부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 미국 측 참여자 3: 강력하고 명확한 수요 신호가 있어야 20, 30년을 내다본 투자가 가능함
- 홍석환(HD현대 USA CEO): 미국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심각함. 자동화 장비, physical AI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별첨 1. [주제발표 자료]



201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U.S.-ROK Cooperation on Shipbuilding)
July 16, 2016 (Thursday) 9:00-10:30, RAND Corporation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미 협력:
상업 조선 및 해사산업 분야**

**Driving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U.S.-ROK Cooperation
in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aritime Industries**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young-Wook Ko, Korea Maritime Institute

0. The Scheme

1. Our Mandates in Commercial Shipbuilding (C.S.) and Maritime Industries (M.I.) 1.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상업적 조선 및 해사 산업에서)
2. Our Problems of Ecosystems in C.S. and M.I. 2. 우리의 산업생태계 문제 (상업적 조선 및 해사 산업에서)
3. Innovations Corresponding to Problems in C.S. and M.I. 3. 문제에 상응하는 혁신 (상업적 조선 및 해사 산업에서)
4. Innovation Methods for Achieving Competitiveness in C.S. and M.I. 4.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방안 (상업적 조선 및 해사 산업에서)
5. Cooperation Methods in C.S. and M.I. 5. 협력 방안 (상업적 조선 및 해사 산업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Our Mandates: Why U.S. and ROK should cooperate in C.S. and M.I.

미국: 신속한 미국 조선업의 부흥

U.S.: soon revitalize once-great shipyards

중국의 위협

질문: 미국 부연과 정부의 조사결과는 중국의 '조선해양산업 부흥 전략적 계획'을 '확보'하는 데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가?
2) 미국과 중국 간의 조선업 경쟁력 격차 부흥을 저우거나 제한을 가함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러시아	기타	합계	비중
한국	403	273	0	0	0	0	0	403	1%
중국	110	3,834	12	0	0	0	0	3,956	22%
일본	343	0	0	0	0	0	0	343	2%
미국	1,041	3,149	110	0	0	0	0	4,299	25%
유럽	141	0	0	0	0	0	0	141	0%
러시아	1,000	2,190	110	0	0	0	0	3,300	19%
기타	0	0	0	0	0	0	0	0	0%
합계	2,935	12,046	122	0	0	0	0	15,103	100%
비중	19%	80%	0%	0%	0%	0%	0%	100%	100%

자료: 김광수 외 (2020)

China's Threat

Policy: The investigation of USITR (Jan. 2025) indicate that China's targeting of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 is

1) unreasonable and 2) harmful to restrict U.S. commerce.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러시아	기타	합계	비중
한국	403	273	0	0	0	0	0	403	1%
중국	110	3,834	12	0	0	0	0	3,956	22%
일본	343	0	0	0	0	0	0	343	2%
미국	1,041	3,149	110	0	0	0	0	4,299	25%
유럽	141	0	0	0	0	0	0	141	0%
러시아	1,000	2,190	110	0	0	0	0	3,300	19%
기타	0	0	0	0	0	0	0	0	0%
합계	2,935	12,046	122	0	0	0	0	15,103	100%
비중	19%	80%	0%	0%	0%	0%	0%	100%	100%

자료: 김광수 외 (2020)

한국: 조선업 시장 점유율 유지 또는 확대

ROK: maintain or increase market share

2. Our Problems: Status quo of U.S. and ROK in C.S. and M.I.

미국

U.S.	VS	CHINA
<200 Shipyard Revenue		>7,000 Shipyard Revenue
<5 Shipyard Orders		>1,500 Shipyard Orders
<153,000 Shipyard Revenue		>600,000 Shipyard Revenue
<12,000 Shipyard Revenue		>1.7 Million Shipyard Revenue

자료: Wadsworth et al. (2024)

U.S.

U.S.	VS	CHINA
<200 Shipyard Revenue		>7,000 Shipyard Revenue
<5 Shipyard Orders		>1,500 Shipyard Orders
<153,000 Shipyard Revenue		>600,000 Shipyard Revenue
<12,000 Shipyard Revenue		>1.7 Million Shipyard Revenue

자료: Wadsworth et al. (2024)

한국

- 1-1) 선박 발주 수요 부족
- 1-2) 중국 대륙 원가 경쟁력 약화
- 1-3-1) 정부 지원 정책 부족
- 1-3-2) 조선 관련 금융 지원 약화 (Refund Guarantee 부족)

- 2-1) 국가 필수선박 건조에 어려움
- 2-2) 범용기재 산업 생태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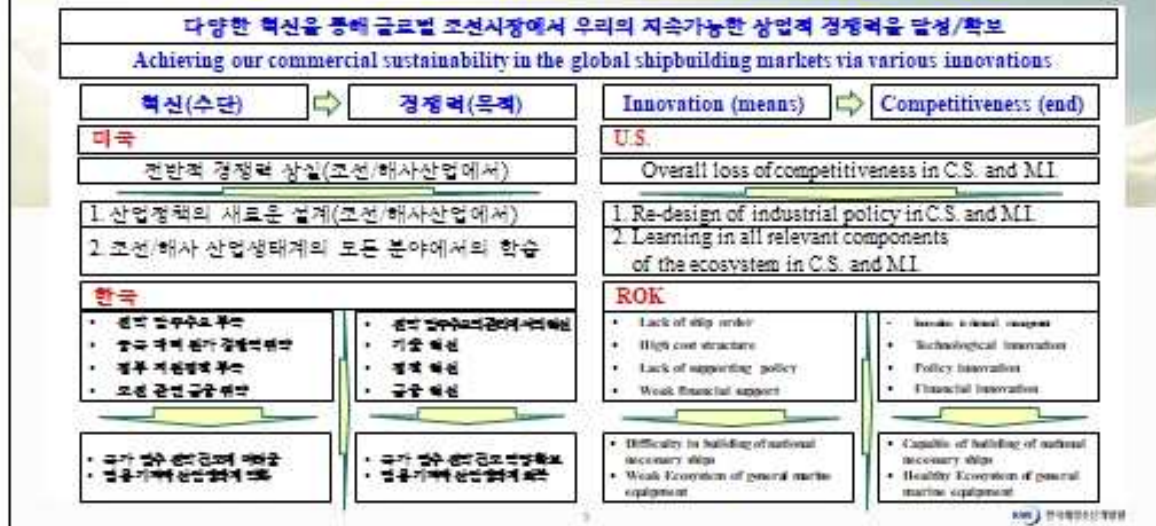
ROK

- 1-1) Lack of ship order
- 1-2) High cost structure relative to China's
- 1-3-1) Lack of supporting policy
- 1-3-2) Weak financial support (e.g.: Lack of Refund Guarantee)

- 2-1) Difficulty in shipbuilding of national necessary ships
- 2-2) Weak ecosystem of general marine equipment

3. Innovations Corresponding to Problems:

Why we need to drive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C.S. and 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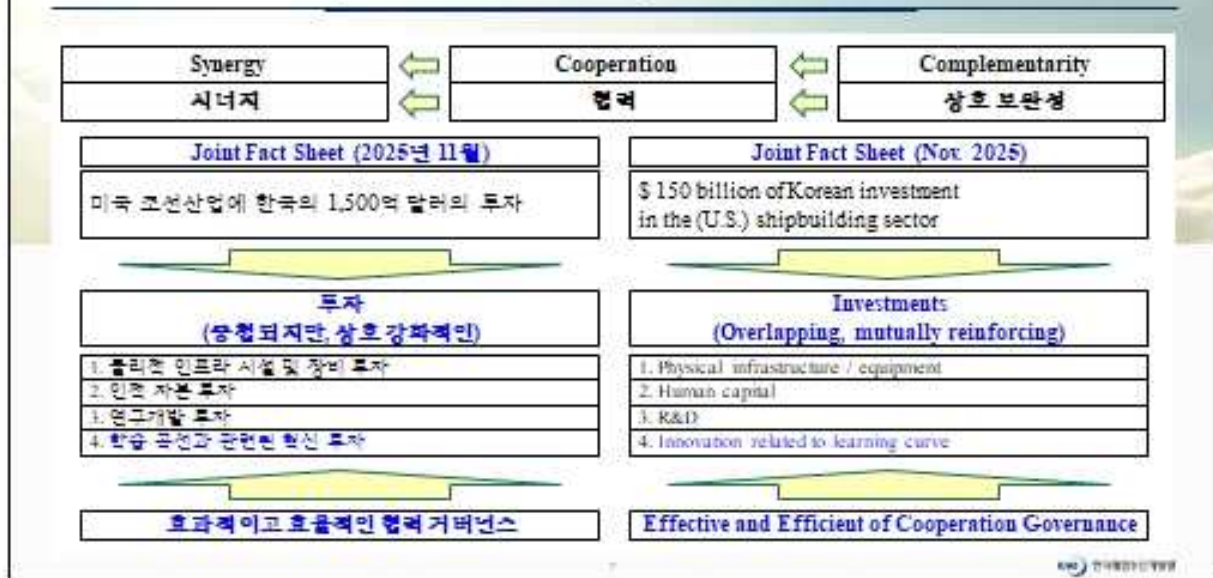


4. Proposal-1: How to drive innovation

for achieving U.S.'s and ROK's competitiveness in C.S. and M.I.



5. Proposal-2: How to cooperate in C.S. and M.I.



참고문헌(References)

대한민국 정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실행자료”, 2025. 11. 14.

김종훈, 이서진, 이지웅,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기업평가, 2026.6.30.

이윤창, “경제안보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선종 다변화와 해운 연계 방안”, 산업연구원, 2026. 5. 14.

한국선급 법무팀, “미일 해사산업 재건법과 고려가능한 국내적 접근법”, 2026.3.24.

Clarksons Research

The White House,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February 2026

Waltz, et al.,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Reversing the Decline of America's Maritime Power”, April 30, 2024.

별첨 2. [대표단 공문]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



한국국제교류재단



수 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유)

제 목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참석 요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은 2025년 10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조선 분야 협력'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한미 조선 및 해양 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와 함께 오는 7월 16일(목) 워싱턴 D.C.에서 「2026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3. 본 포럼은 공개세션과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1, 2로 진행 예정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병욱 연구위원님을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2의 발제자로 초청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명: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나. 일시/장소: 2026.7.16.(목) 9:00-16:30 / 미국 워싱턴 D.C.

다. 주최 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라. 초청 대상: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마. 지원사항: 인천-워싱턴 D.C. 왕복 항공, 현지 숙박 및 교통 등

바.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일정	비고
7.14.(화)	10:25-11:15	인천 → 워싱턴 D.C.	KE093
7.15.(수)	15:00-18:00	한국대표단 예비회의	
7.16.(목)	9:00-16:30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개최	
	18:00-19:30	한국대표단 만찬	
7.17.(금)	13:30-17:40(+1)	워싱턴 D.C. → 인천 이동	KE094

4. 문의처: KF 해외정책연구사업부 김효정 과장 (hyojungkim24@kf.or.kr / 064-804-1088)

붙임 2026 한미 조선 협력 전략대화 개요. 끝.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과장 김효정

해외정책연구사업 07/03
부장 배성원

협조자

시행 해외정책연구사업부-765 (2026. 7. 3.) 접수 ()
우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종로 56 (서귀포시청2청사) 한국국제교
류재단 /www.kf.or.kr
전화 064-804-1088 /전송 064-804-1273 /전자우편 hyojungkim24@kf.or.kr /공개

별첨 3. 인적 교류(명함)



ENGINEERING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신종계 申鍾桂
영예교수 | 미국조선학회 석학회원
국제조선학회 회원 | 회장
한국산업(KRI) 기술위원장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

108800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M 010-8843-6174
E jgshin@snu.ac.kr W http://shipbuilding.snu.ac.kr



윤 주 석
공사 (공공외교)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Mobile : 202-812-7092
cnyoonBB@noia.go.kr

Michael E. McMahon, Ph.D.
Senior Engineer

1200 South Hayes Street
Arlington, VA 22202-5050
Office 703.473.1100 x3322
Mobile 571.296.8542
mmcmahon@rand.org



SIPRNet: Michael.e.mcmahon.civ@mail.smil.mil

OBJECTIVE ANALYSIS. EFFECTIVE SOLUTIONS.

Miyoon Oh
Distinguished Chair in Korea Policy
Senior Security and Defense Researcher

1200 South Hayes Street
Arlington, VA 22202-5050
Mobile 703.849.3794
moh@rand.org



OBJECTIVE ANALYSIS. EFFECTIVE SOLUTIONS.

Marcus Jones
Senior Fellow

4445 Indian Head Highway
Indian Head, MD 20640
+1 475-221-0569
mjones@etcemd.com



Bradley Martin, Ph.D
Senior Policy Researcher

bmartin@rand.org
619-210-9868



김용욱 金 龍 郁
KIM YONGUK

한국국제교류재단
고유철학이사
Executive Vice-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T +82-2-2151-6513
M +82-10-8509-1622
E simsoocytene@kf.or.kr
W www.kf.or.kr



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 한미경제연구소

스캇 스나이더
소장

ssnyder@keia.org
tel: 202-222-0026

1800 K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06
www.keia.org

KF KOREA FOUNDATION USA
한미미래센터

이수연
소장
KF한미미래센터

900 17th Street NW Suite 910, Washington D.C. 20006 U.S.A.
Tel (+1) 202-812-6899
E-mail syicoo@kf.or.kr www.kf.or.kr

백성원
Bae Sung Won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국제협력)
소장

Director
Korea Economic Institute
The Korea Foundation

T +82-04-804-1143
M +82-10-0823-7967
E baesung@kei.or.kr
W www.kei.or.kr

